아이들은 숲에서 뛰어놀고, 부모들은 메디컬 웰니스 서비스를 받는다. 제주 '더 위'(THE WE)가 '헬스 리조트'란 새 영역을 개척하며 주목받고 있다. 숲 트래킹 프로그램 '힐링 포레스트', 웰니스 프로그램 '아쿠아 플로팅', 맞춤형 메디웰 프로그램과 건강 식단을 처방해주는 건강증진센터.(왼쪽부터)
사진제공 | 더 위

한라산 5성호텔서 건강·미용·水케어까지…

한라병원 의료진의 관리 아래
맞춤형 웰니스 프로그램 운영
한라산 중턱 위치 숲체험 가능
천연화산암반수, 피부미용 효과

유네스코가 인정한 청정지역인 제주 한라산 중산간의 울창한 숲. 아이들이 숲에서 나무와 햇빛, 흙 등 청정자연을 관찰하고 이를 이용해 다양한 미술활동을 한다. 여기까지는 요즘 국내 여러 리조트에서 운영하는 자연체험 프로그램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아이들이 숲에서 노는 동안 부모들은 화이트닝케어나 링클케어, 면역력 케어 등 전문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메디컬 웰니스(메디웰) 서비스를 리조트에서 받는다. 차세대 고부가가치 관광으로 꼽히는 의료관광에서 일찌감치 '헬스 리조트'란 새 영역을 개척 중인 제주 '더 위'(THE WE)에서 접할 수 있는 풍경이다.

●한라산 천연화산암반수 수(水)치료 운영

서귀포시 중문동 한라산 중산간에 있는 '더 위'(THE WE)는 제주한라의료재단이 운영하는 병원과 호텔을 융합한 국내 최초의 프리미엄 헬스리조트다.

2014년 2월 문을 연 '더 위'는 크게 WE호텔과 WE병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WE호텔은 5성급 서비스와 객실 및 레스토랑, 각종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웰니스 센터를 갖추고 있다. WE병원은 모기업인 한라병원의 의료 서비스 기술로 운영하는 건강증진센터와 뷰티센터에서 건강증진프로그램과 미용성형을 위한 상담 및 시술을 받을 수 있다. 개관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료관광 선도병원으로 지정했다.

국내 첫 프리미엄 헬스 리조트 '더 위'(위)와 모기업 제주 한라병원 전경.
사진제공 | 더 위

요즘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웰니스 관광 수요가 크게 늘면서 국내서도 이런 서비스를 표방하는 호텔이나 리조트가 늘고 있다. 하지만 종합병원 의료진의 관리 아래 체계적인 메디컬 웰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사실상 '더 위'가 유일하다.

헬스리조트 '더 위'의 장점은 우선 위치다. 한라산 중산간 350m에 있어 맑은 공기와 바다를 굽어보는 입지조건을 자랑한다. 21만㎡의 숲을 보유해 관내에서 산림테라피와 숲 트래킹이 가능하다. 매일 아침 숲을 이용한 트래킹 프로그램 '힐링 포레스트'를 진행한다.

숲 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원시림이 온전히 보존된 도래숲, 아름답게 꾸민 해암숲, 메가와티 가든 등을 돌며 숲체험과 호흡, 숲명상을 체험한다.

이곳에서 사용하는 물은 한라산 지하에서 끌어올린 천연화산암반수다. 몸속 노폐물 제거와 피로회복, 피부미용에 좋다는 중탄산과 바나듐, 마그네슘 등을 다량 함유했다. 그래서 '더 위'는 이 물을 활용한 다양한 수(水)치료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고객별 맞춤형 '메디웰' 프로그램 인기

WE병원에서는 전문의로부터 개인맞춤형 건강상담 및 미용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전문의는 고객별로 맞춤형 건강 증진 메디웰(메디컬+웰니스) 프로그램을 제안해준다. 과학인 메디컬과 자연인 웰니스를 결합한 '더 위'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이다.

대표적인 웰니스 프로그램으로는 천연 크리스탈 싱잉 볼을 활용한 명상 프로그램 마인드 테라피(MIND THERAPY), 각기 다른 6가지 풀을 이용해 신진대사 촉진과 피부 탄력증가 등을 돕는 아쿠아 서킷(AQUA CIRCUIT), 자녀와 함께 체험하는 아이랑 프로그램, 돔형태의 메디테이션 풀에서 진행하는 아쿠아 플로팅(AQUA floating), 물의 저항을 활용한 아쿠아 바이크(Aqua bike), 스트레스 검사와 면역증진·독감예방 등에 좋은 비타민D 주사를 제공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이 있다.

'더 위' 대표를 맡고 있는 김성수 한라의료재단 원장은 "더 위는 제주한라병원이 국내서 처음 만든 새로운 개념의 메디컬 리조트"라며 "이전 의료관광이 단순한 치료에 머물렀다면 더 위는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해주는 웰니스 투어리즘을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앞으로 더 위를 통해 21세기 신성장 동력인 의료관광에서 다양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조민영 365mc 천호점 대표원장

"고도비만, 지방흡입 후 감량 효과 높아"

365mc, 지난해 BMI35 이상 고도비만 고객 조사
평균 BMI 4.2 감소…체중도 평균 11.3kg 감량

체질량지수(BMI) 35가 넘는 고도비만도 고객들이 지방흡입 이후 체중감량 성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흡입·비만클리닉 특화 365mc가 2020년 한 해 서울, 대전, 부산, 인천, 대구의 병원을 내원한 BMI 고도비만 고객 2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BMI 지수는 평균 4.2 감소했고, 체중도 평균 11.3kg 감량에 성공했다. 이번 조사는 365mc의 데이터 분석 연구소인 HOBIT에서 진행했다.

통상 지방흡입은 허벅지나 복부, 팔뚝 등 특정 부위에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된 부분비만을 개선하는 체형교정술로 선호도가 높다. 하지만 고도비만자도 이를 통해 체형 교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도비만의 경우 식이요법이나 운동으로 체중 감량에 성공하는 경우는 2~3%에 불과하다는 국내외 연구가 있을 정도로 체중감량이 쉽지 않다.

지난해 365mc를 찾은 고도비만 고객은 여성이 71%, 남성이 29%였다. 이들 중 가장 많이 줄인 사람은 36.4kg을 뺐다. 시술받은 고객의 절반 정도인 118명이 고도비만 지수에서 벗어났다. 병원 측에 따르면 이들은 평균 143.9일을 내원해 장기간 사후관리를 받았다.

이번 조사에서 고도비만자가 선호하는 수술 부위는 복부(201건, 49%)가 가장 많았다. 이어 팔뚝, 허벅지, 등, 러브핸들, 가슴, 종아리, 얼굴 순이었다.

조민영 365mc 천호점 대표원장은 "지방흡입이 질환을 개선하는 직접적인 치료는 아니지만, 과도한 지방세포로 인한 질환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고도비만인에게 지방흡입이 다이어트 효과는 물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한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의료관광 시장 선점하라"…해외 팸투어 등 분주

관광공사, UAE 의료관광 관계자 초청
서울시, 의료관광 활성화 협의회 출범

의료관광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세계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분야다. 한국은 의료관광 목적지로 인지도가 높다. 방한의료관광객의 1인 평균지출(791만원)은 일반관광객 1인 평균(144만원)보다 5.49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나 지자체들도 의료관광시장 선점을 위해 최근 해외 팸투어를 진행하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5월 말 아랍에미레이트(UAE) 의료관광 관계자 5명을 초청해 팸투어를 실시했다. 이들은 아랍에미레이트의 정부송출병원으로 지정된 이대목동병원, 서울성모병원, 자생한방병원, 우리들병원 등을 방문했다. 동반가족을 위한 서울한방진흥센터, 비스타워커힐 웰니스 클럽 등 웰니스 관광시설도 돌아봤다.

UAE 의료관광 관계자가 자생한방병원서 진료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관광공사

서울시도 올해를 '의료관광 재도약 원년'으로 정하고 서울관광재단을 중심으로 관련 인프라 정비와 전략적인 홍보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다. 150여 개 의료기관과 의료관광 관련업체 등으로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협의회' 2기를 출범했다. 앞으로 외국인환자의 자가격리비를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서울의료관광국제트래블마트도 개최할 계획이다.

김재범 기자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천호엔케어 '식이섬유 담은 자몽스틱' 출시

천호엔케어는 레드자몽농축액과 식이섬유를 스틱형 젤리에 담은 '식이섬유 담은 자몽스틱'을 출시했다. 1박스당 원과 4개(원과 600g 기준)에 해당하는 레드자몽농축액을 함유했다. 과일 섭취가 부족한 현대인을 위해 난소화성 고분자 섬유질인 식이섬유도 고함량으로 배합해 1포 당 1500mg의 식이섬유를 보충할 수 있다. 이밖에 레몬밤추출물분말과 히비스커스농축액, 비타민C, 피쉬콜라겐 등 4가지 원료도 함유했다.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6월 10일(목) 음력: 5월 1일 문의 : (02) 812-1201, 도원학당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행운색:청색 길방:동	행운색:흰색 길방:서	행운색:검정 길방:북	행운색:검정 길방:북	행운색:흰색 길방:서	행운색:노랑 길방:중앙
현실에서 모든 것을 탈피하고 싶은 심정이며 안정을 갖지 못하는 때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뒤엉켰던 일들이 서서히 풀려나가며 금전문제도 해결되니 경솔한 판단보다 겸허한 마음자세가 더욱 필요하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시기이다.	결단력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대로 결행함이 필요한 때다. 명예가 따르고 금전적인 여건도 아울러 발전하니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밀고 나가는 행동력과 확고한 자기노력이 뜻을 실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활동성이 위축되는 날이다.	귀인의 도움으로 명예와 재물이 따르며 문서적인 문제도 자신의 소신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성간에도 지금까지의 지연상태가 급변하여 원하는 상태로 돌입하며 좋은 인연을 맺게 될 것이다. 모든 일이 형성되기 이전의 단계이다.	몸과 마음이 굳세면서도 위험이 앞에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자중해야 한다. 때를 기다리지 않고 강에 뛰어드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다. 힘을 기르면서 기다리면 크게 성공할 수 있다. 묵은 돈이 들어오는 횡재수가 있는 날이다.	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 주위의 인정이나 판단을 의식하여 자신의 주관을 잃으면 고통을 맛보기 쉽다. 과감성을 갖고 행동에 임하면 명예는 한층 더 돋보일 수 있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운이기도 하다.	현실을 탈피하고 싶은 심정이며 안정을 갖지 못하는 때이다. 하는 일이 순조롭지 못하는 데서 갈등이 기인되며 모함이나 질투로 인하여 고립되는 상태에 놓인다. 자신의 반성과 상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좋은 마무리의 날이다.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행운색:청색 길방:동	행운색:흰색 길방:서	행운색:노랑 길방:중앙	행운색:노랑 길방:중앙	행운색:흰색 길방:서	행운색:청색 길방:동
냉전 상태를 심각하게 몰고 가면 현 위치에서의 이탈, 또는 다른 파경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으니 마음을 어떻게 결정하는가가 중요하다. 모든 생각과 행동은 자신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점 명심하기 바란다. 복잡한 인간관계도 청산하라.	정성을 다하면 작은 소원 성취는 되겠지만 큰 소원은 아직 성취될 때가 아니다. 무리한 투자나 확장을 삼가하고 수입을 늘리기보다는 지출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겠다. 소극적 행동을 취하라. 주변인을 믿지 마라.	함부로 안간힘을 쓰지 말고 조용히 겨울철이 끝날 때를 기다려야 한다. 겨울이 오면 봄이 멀지 않는 법이다. 오늘은 어떠한 노력도 통하지 않는 때이다. 당신도 기력의 회복과 길한 운세를 기다려야 한다. 많은 노력과 정성과 활동이 필요하다.	계획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며 직업이나 학업을 통해 보다 확고한 자신의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시기이다. 매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을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마무리의 날이다.	직업상의 변동과 문서와 연관된 일에서 이득을 찾으려 하는 때이므로 일관된 목표의식을 갖되 주위를 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크게 이득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현상유지만 도모할 뿐이다. 취침 시 서남방향으로 머리를 향하라.	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 능력이나 용기를 잃고 좌절할 경우 많은 실망을 안겨줄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말라. 한 발 앞선 행동도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매사 모든 일이 될 듯 될 듯 안 된다.

오늘의 날씨

10일(목)

서울	인천	춘천
0/60 22 28	10/70 20 26	0/30 20 29
강릉	**대전**	**전주**
0/30 19 26	0/60 20 29	0/60 20 29
광주	**대구**	**부산**
20/60 20 28	0/20 18 31	0/20 19 26
창원	**제주**	
0/20 18 27	20/60 21 27	

지역 / 강수 확률 (오전/오후)
날씨 / 최저 최고기온°C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596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제호 사업총괄 김상수 광고국장 이승욱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모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